신/년/인/터/뷰

"4차 산업-공동체-미래상 매진"

윤장현 광주시장

친환경차 · 에너지 · 문화 주춧돌 삼아
'미래 먹거리'로 지역 발전 견인 전략
"시민 모두 행복한 시민행복시대 열 것"

윤장현 광주시장은 2018년 무술(戊戌)년 3대 역점 과제로 광주형 일자리를 주축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구축과 자치공동체 조성, 미래도시상 등을 제시했다.

'촛불 민심'을 받든 공감 행정을 토대로, 친환경차와 에너지, 문화 등 삼두마차를 시정의 주춧돌 삼아 이젠 미래 먹거리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다.

윤 시장은 27일 "새해는 전라도가 천년의 역사를 딛고 새 천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면서 "광주의 한을 꿈으로 바꾸려는 노력에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 노·사·민 각 주체가 줄탁동시의 지혜를 모아 '광주의 시간'을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이 현실이 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더나은 자치공동체 조성 ▲미래 도시상 등 3가지 방향으로 압축한 시정계획을 새해 화두로 던졌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와 관련해 윤 시장은 "최첨단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3대 밸리를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진해온 친환경차, 에너지 신산업, 문화콘텐츠 융합 등 3대 미래 먹거리에 산업을 중심에 두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로 의료로봇, 가상현실(VR) 제작지원 거점센터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육성하는 일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 대응 마스터플랜까지 '스마트 휴먼시티, 人 광주'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10년 간 1조원의 국비가 투입될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창업단지는 광주의 또 다른 미래먹거리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윤 시장은 기대했다.

아울러 지난해 출범한 3대 밸리 기업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시범 적용할 기업체 유치 발굴에 힘쓰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에도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에너지산업특별법 제정으로 탄력을 받게 된 남구 도시첨단에 스마트 에너지기업 등을 유치해 차세대 에너지 융합 생태계로 조성해 나가는 한편 7대 문화권역을 5대 권역으로 재편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은 자치공동체와 관련, 윤 시장은 "지역 청년들이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당당한 청년도시'를 만들겠다"며 "지난해 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5·18 관련 특별법이 정치권내 이견으로 무산돼 안타깝지만, 빠른 시일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일자리가 늘어 청년이 당당한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청년드림사업과 청년창업펀드, 창년창업 특례보증 등 기존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드림은행을 통해 청년부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편 공·폐가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주택을 마련해 그들의 무거운 짐을 덜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또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역사와 문화가 흐르고 도시에 활력이 더해져서 '찾아와 머물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다"며 "옛 전남도청과 전일빌딩은 역사적 공간을 원형보존해 위대한 유산으로 남기겠다"고 말했다.

사람을 중심에 둔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갇힌 생각에서 벗어나 미래 천년을 내다보는 큰 틀의 상생을 통해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중추공항으로 거듭나도록 하면서 광주 군 공항 이전도 전남과 지혜를 모아 해법을 찾아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끝으로 "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힘쓰면서 소통과 참여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협업과 협치, 시민참여형 직접민주주의 모델 완성, 관련 조례 제정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이 지방으로, 또 마을로, 시민에게 내려가는 지방분권이 민주주의 완성"이라며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과 연계해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분권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시정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오월역사를 바로 세워 주라는 광주 시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응답해줬고, 진실을 밝힐 법적 토대 마련까지 진일보했다"며 "여기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앞으로 50년, 100년후 광주를 먹여 살릴 미래전략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광주가 비로소 소외와 한의 땅에서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저항의 에너지를 참여와 창조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가는 한 해였다"고도 말했다.

한국전기연구원 분원 착공, 에너지산업특별법 제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국정과제 반영, 첨단 실감콘텐츠 제작클러스터 조성, 광주형 공동브랜드 완제품 출시, 명품강소기업 100개 선정, 월드클래스 300에 4개사 등록, 청년드림사업에 대한 호평, 프린지페스티벌 등도 "광주를 한 단계 도약시킨 시정 성과"로 자평했다.

역대 최대인 국비 1조9743억원 확보도 재정적 성과로 제시했고, 도시철도 2호선 차량형식 결정, 기아챔피언스필드 사용수익 추가협약 문제 해결,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본격 착수 등도 의미있는 시정으로 평가했다.

반면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어등산 개발, 송정역 환승센터, 군공항 이전, 자치구 경계조정, 소각장 부지 활용, 민주평화교류원 개원 등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 또는 예상했던 주요 현안사업들이 갈등과 논란 끝에 줄줄이 해를 넘긴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서은홍 기자

동구,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5년 연속 선정

광주 동구는 보건복지부 '2018년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공모사업에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선정돼 사업비 4250만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은 사회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들끼리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지속적인 상호 돌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구는 수행기관인 조선대학교노인복지센터의 사업역량과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구, 열린혁신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광주 서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7년 열린혁신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그 동안 서구는 각 부서별로 38건의 열린혁신 추진 과제를 발굴해 주민, 구정참여평가단, 의원, 공직자를 대상으로 10건의 선도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별마루 행복공동체, 발산에서 미래를 꿈꾸다 ▲마을과 사회적경제를 잇는 1동 1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일·가정 양립과 좋은 분위기에서 일하기 ▲활력넘치는 건강도시 살맛나는 으뜸서구 서구건강체력센터 운영 ▲공공도서관 통합·맞춤·공유서비스 구축·운영 등 5개의 선도과제를 제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구, 영세 中企대상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

광주 남구가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남구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일 경우에도 지원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과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도 지원이 가능하다.

북구, 감사사례 열람 시스템 운영

광주 북구는 오는 1월부터 감사 지적사례 공유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사례 열람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사례 열람은 상급기관 감사·자체감사 등의 내용을 원문으로 찾아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책자 형태로 제작·배부해왔던 감사사례집의 경우 수록 분량·검색·배포량 등이 제한돼 활용성 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북구는 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 지적사례를 예산·회계, 계약·공사 등 12개 분야별로 분류하고 주제어별 검색 기능 등을 추가해 직원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검색, 업무에 적극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광산구 주민들, 무장애 도시 위해 휠체어 점검

지난 23일 오전 일단의 '휠체어 군단'이 하남주공아파트에 나타났다. '장애 없는 광산'을 위해 장애인 7명, 비장애인(청소년) 6명이 휠체어를 타고 광산구 주요 도로 '점검'에 나선 것. 광산구 운남더불어락 인권마을, 하남주공 인권마을 관계자 17 명이 이들과 동행했다.

주민들은 하남주공아파트를 출발해 광주지방경찰청을 거쳐 1913송정역시장까지, 6km를 약 두 시간 동안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다.

휠체어를 탄 청소년들은 곳곳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포스트잇에 메모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이들은 목적지 1913송정역시장에 도착해서는 상점을 방문해 장애인도 마음껏 찾을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1913 캠페인' 동참을 당부했다. 참가자와 상인들은 △매장 입구 경사판 설치 △남·여 분리 화장실 마련 △시각장애인 도움 장치 설치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해남 · 나주 · 목포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한 정 승 인 공 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7느단 1040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정 윤 관(670130-1634327)
최후주소 : 순천시 장평안길 114, 203호 (남정동)
등록기준지 :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198

위 망 정윤관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7년 12월 28일

공고인 : 김점악.
주 소 : 순천시 해룡면 몰랑길34
한정승인수리일 : 2017년 12월 22일
공고기간 : 2017. 12. 28~ 2018. 2. 29

한 정 승 인 공 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7느단 270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박 재 순(370912-1665812)
최후주소 : 전남 진도군 의신면 창포리 90
등록기준지 : 전남 진도군 의신면 창포리 90

위 망 박재순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7년 12월 28일

공고인 : 박세운, 박정호, 김소현, 김명환, 최진욱, 최수현, 이선화, 이승훈, 곽유진, 곽명진.
주 소 :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377, 108동 107호(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17년 12월 19일
공고기간 : 2017. 12. 28~ 2018. 2. 29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석면 해체공사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석면조사
측 량 >> 토 목 설 계 >> 도 시 계 획
토목공사>>창업상담>>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노동법 기업컨설팅 ▶산재업무대리
▶급여체계 정비사 ▶징계(해고)자문
▶4대보험 무료대행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